군종교구, "군승 희망 동국대 학생, 출가 혜택"

동국대 불교학과 · 막학기 학생
행자 교육 축소, 취업계 도입
군불자 DB 시스템 확대 추진
장병 위한 '선명상 앱' 개발도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감소 극복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군승을 희망하는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생은 행자 교육 축소를, 동대 4학년 2학기 학생은 취업계 인정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군승 수급으로 군포교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2월 14일 서울 국방부 원광사 3층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군종특별교구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핵심사업에는 △군불자 관리 시스템 체계화 △군승 홍보 및 수급 △군 전법활동의 확산 △군종교구 운영시스템 안정화 총 4가지다.

이날 교구장 법원 스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승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최근 출가자 감소의 여파가 군승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군불교를 이끌 군승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변경, 출가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스님에 따르면, 군종특별교구는 군승 희망자에 한해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생은 행자 기간 6개월을 면제해 주고 바로 행자교육원 입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과와 상관없이 동국대 4학년 2학기 재학생은 취업계를 인정해 주는 제도도 마련한다.

군종특별교구는 이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종단의 출가장려특위와 종립학교인 동국대와 활발한 논의 중에 있다. 다만 혜택만 받고 군승으로 임관하지 않는 악용 사례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한다. 종립학교인 동국대를 졸업하고, 불교교리와 불교문화를 습득한 학생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해, 군승 수급율을 끌어올리자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홍보국 신설, 군종병 연수, 불교박람회, 불교 종립 중·고등학생 선연프로그램과 밀리스테이 연계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군승 수급에 나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군종특별교구는 장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영·위관급 불자 데이터 구축 및 관리에도 나선다. 군종특별교구는 2024년부터 군불자 관리 시스템을 추진해왔다. 데이터 구축 후 장성불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에 나선 결과, 2024년 초 20여 명에 불과했던 장성 불자가 현재 108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올해도 육군교육사령부 자운사, 상무대 무각사, 학생군사학교 학림사, 각 군 사관학교 법당 등 장교 양성 교육부대 법당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 불자 장교 관리에 힘쓴다. 또한 준부사관·군무원·장병 불자까지 각 계층, 단위별 불자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군장병을 불교로 유입시키기 위한 전법 활동도 강화한다. 군종특별교구는 2024년에 육군 전법 활성화에 힘썼다면, 올해는 해군 전법에 진력할 계획이다. 격무로 지친 군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진해 해군기지, 해군사관학교에 초청, '선명상 특강'을 개최한다. 또한 '통신 보안' 등 군내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확산을 추진하고, 종단 선명상 앱에 군장병 부문을 신설해 군 전법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출범 20주년을 맞은 군종특별교구는 조직 안정화로 내실 다지기에도 진력한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종특별교구법을 재정비하고 군종특별교구 상임위원 사찰의 정례화된 후원으로 교구 재정 규모를 안정화하고 확대한다. 더불어 군종특별교구 출범 20주년 행사는 군승의 날과 연계, 군종특별교구의 발자취를 톺아보고 군포교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또한 군종특별교구가 주관했던 '호국위령영령대재'를 종단 차원 행사로 격상, 호국불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직의 위상을 강화한다.



진우 스님과 대불련 소임자들이 기념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마음 평화 전하는 대학생 불자 되길"

진우 스님, 2월 17일 대불련 소임자 예방서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주요 소임자들의 예방을 받고 "마음 평화를 주변에 전하는 대학생 불자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유주연, 이하 대불련)는 2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진우 스님은 "수행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불교의 힘"이라며 "선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평안케 한 다음, 주변의 친구들에게 마음 평화를 전하는 '전법'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대학마다 학생들이 대불련에 가입하게 하려면 전법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며 "지역사찰과의 연계, 종단적 차원의 지원으로 대불련 활동에 부족함이 없게 돕겠다"고 말했다.

유주연 63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은 "'재미있는 불교, 즐거운 대불련'이 이번 대불련의 슬로건이다"면서 "누워서 명상할 수 있는 와선명상대회 등 법우들이 쉽고 재밌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민재 기자

비구니회, 돌봄부터 장례까지 '입적토탈케어' 추진

전국비구니회원장 · 49재 봉행 등
승가공동체 결속 강화가 목표
"올 6월에는 본격 시행 가능"



전국비구니회는 2월 19일 제3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적토탈케어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노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돌봄부터 장례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평생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공동체 안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2월 19일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열린 제37차 운영위원회에서 취지문과 시행규칙(안)을 공유하고 '입적토탈케어 사업'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문중과 인연이 끊어지거나 상좌가 없이 홀로 수행하는 스님들의 경우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키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조차 홀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노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임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입적토탈케어 사업은 노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종합 돌봄 지원 체계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정기적인 생활 돌봄(전화·방문) △입적 시 '전국비구니회원장' 지원 △49재 봉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비구니 스님의 위의를 지키고, 승가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입적토탈케어 대상은 요양원에서 지내거나 사찰에 홀로 거주하는 스님, 입적 관련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스님,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스님들이 포함된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입적토탈케어기금'도 설치한다. 기금은 신청 당사자 기탁금과 스님 및 불자들의 후원금, 승려 유언장에 의한 자산 등으로 조성된다. 주요 사용처는 사업비, 사례비, 인건비로 명목으로 제한해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기금 관리와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전국비구니회와 별도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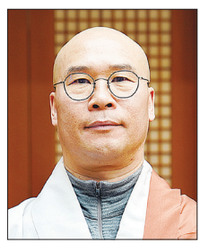
회장 광용 스님은 취지문을 통해 "전국비구니회는 그동안 비구니 스님들이 인천의 사표로서 위의를 갖고 여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정진해 왔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이 성취되는데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 총회는 3월 20일로 예정됐다.

김내영 기자

탄자니아 보리가람 법인처장 선정 스님

"한국불교 지평 넓힐 것"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사진)은 2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지부 법인처장에 선정 스님을 임명했다.

선정 스님은 3월 1일부터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 △초등학교 영양급식 지원 사업 'HAPPY CORN' △세종학당 △보리수아동센터 △보리사 사찰 운영 등의 소임을 맡는다. 올해 3월 12일 탄자니아로 떠나 현지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많은 세계인들이 불교의 세계일화 정신을 알게 되는 시작점이 탄자니아가 될 수 있다"면서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의 불교 중심지로 거듭나게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정 스님은 "처음 출가했을 때 마음가짐으로 정진하며 탄자니아 지부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며 "탄자니아 현지 법인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아프리카 전법을 이끌어 한국불교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무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선정 스님은 2013년 직지사에서 혜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18년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김가령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 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myogong@daehaeng.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10 대행선연구원

제8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 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및 불교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공모기간** : 2025년 3월 1일(토)~31일(월)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제7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통합과정 포함) 및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 **선발인원** : 0명(스님은 별도 전형)
- **공모기간** : 2025년 3월 1일(토)~31일(월)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모집
- **발간시기** : 연 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와 심사비, 게재료, 연구지원기관 표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 SEON STUDIES